

김수연 작가, 문자도에 담은 ‘행복’… 2년 만의 개인전

‘해피 라이프 2’… 8월 29일까지 19일 전남대 용봉관서 개막행사 신작 ‘문자도’ 등 40여점 전시 서양화법으로 ‘동도서기’ 재해석

전통 민화의 문자도에 담긴 기복신앙을 서양화 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동도서기’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동양의 길상 문자가 서양의 화법과 조화를 이룬 작품들은 그 자체로 돋보인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와 색채가 더해진 문자도는 회화적 감성을 자극하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같은 ‘동도서기’ 정신을 바탕으로 문자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온 김수연 작가가 2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김수연 초대전 ‘해피 라이프 2’는 전남대학교 용봉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8월2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을 포함해 문자가 새겨진 도자기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수연 작가가 신작 ‘황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간의 작업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복(幸福)’, ‘용(龍)’, ‘덕(德)’ 등의 한자어를 전서체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들이

전시장을 채운다. 캔버스에 유화 재료를 사용해 표현된 문자도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미감을 드러내며,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김수연의 작품 세계는 단순한 문자나

문장 재현을 넘어 동양 철학의 사유와 서양화 기법을 융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화선지 대신 캔버스를, 붓 대신 나이프와 돌가루, 아교를 활용해 물성과 질감을 강조한 화면을 완성했다. 색채는 모노톤에서 파스텔톤까지 폭넓게 사용돼 감성적이면서도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상형문자의 발전 과정을 되짚으며 작업하는 순간이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작가는 어린 시절 고향인 전남 신안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새 발자국을 그리던 기억이 창작의 뿌리가 됐다고 전했다. 그의 전서체는 단순한 문자 재현을 넘어 고대 전서의 조적체(鳥迹體)에서 영감을 얻어 구성됐다. 오랫동안 한시를 공부해온 작가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배어 있다.

전시장에는 금빛 문자가 돋보이는 최신작 ‘황룡’을 비롯해 1000호 크기의 대형작품 ‘천상운집’, ‘수복강령’ 등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압도적 조형미로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김 작가는 근대서

양화의 시각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감성적 직관에 무게를 두는 작업을 이어가며, 민화에서 보이는 비현실적 원근법과 평면성, 기하학적 대칭 구도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작품에 녹여내고 있다.

또한 ‘화락(和樂)’, ‘흥(興)’ 등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문자들을 작품에 구현해 정서적 공감과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 작가는 “이번 작업을 하며 느낀 가장 진실된 감정은 ‘행복’이었다. 관람객들 역시 이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길 바란다”며 “문자도 한 획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작업했다”고 말했다.

전시 개막 행사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전남대 용봉관 2층에서 열린다. 한편 김수연 작가는 국립광주박물관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한-중 현대미술교류전, 한-베트남 프렌드십 특전, 광주아트페어, 부산아트페어 등 국내외 전시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현재 아트포럼 인터내셔널, 대한민국남현대미술제, 한국미협, 광주·전남현대미술가아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초청 28일 국립광주과학관서 토크콘서트

‘우주로 보내는 꿈 엮서’ 등

국립광주과학관은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사진) 박사를 초청해 토크콘서트 ‘우주인 이소연 박사와의 만남’을 오는 28일 개최한다.

17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오는 8월에 열리는 ‘국립광주과학관 2025 돔영화제’의 사전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강연을 통해 이소연 박사가 우주여행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2025 돔영화제’는 8월2~10일 전체투영관에서 ‘우주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돔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다.

이소연 박사는 2008년 4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TMA

-12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출발해, 11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양한 우주과학 실험을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비행사로서 현재까지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주여행’을 주제로 강연자와 사회자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강연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우주로 보내는 꿈 엮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엮서는 국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의 우주선에 탑재돼 우주 비행을 마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행사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찬 기자**

‘리보와 앤’ 광주시 5개 구 순회공연

광주시립극단, ‘출장연극 시리즈’ 감성 가진 로봇과의 우정 이야기

화제의 어린이 문학 작품을 동명의 원작으로 한 연극 시리즈가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극단은 출장 연극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리보와 앤(사진)’을 오는 29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무대를 시작으로 북구 문화센터(7월4일), 남구 문화예술회관(7월6일), 첨단 디자인진흥원(7월11일),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7월16일) 등 광주광역시 5개 구의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원작 ‘리보와 앤’은 제23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며 어윤정 작가의 작품으로 경남, 나주, 무주, 구미 등 여러 시도의 올해의 책에 선정되며 화제를 모았다. 전염병으로 폐쇄된 도서관에 남겨진 도서관 안내 로봇 ‘리보’와 책 읽어주는 로봇 ‘앤’ 그리고 이 둘과 우정을 나누는 소년 ‘도현’의 이야기다. 익숙한 로봇의 이미지와는 달리 ‘리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수집해 배워나가는 안내



로봇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읽기 힘든 감정을 ‘리보’와 ‘앤’은 어떻게 터득하고 교감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공연은 7세(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러닝타임은 60분이다. 지정석으로 운영되며 입장권은 전석 5000원.

박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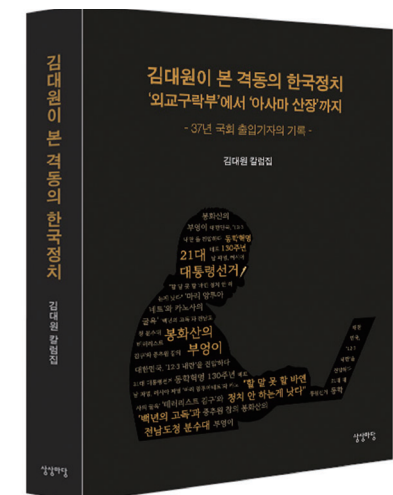
정치 현장 37년의 눈… 김대원 기자, 칼럼집 출간

한국 정치사 주요 흐름 기록

국회를 37년간 출입하며 한국 정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온 김대원 드림투데이 선임기자가 최근 칼럼집 ‘김대원이 본 격동의 한국정치’를 펴내 화제다.

오는 20일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책은 1988년부터 시작된 저자의 정치부 기자 생활 속에서 써온 기명칼럼 90여편을 선별해 엮은 작품이다.

김 선임기자는 이번 시간을 통해 오랜 시간 ‘여의도 칼럼’, ‘여의도 포커스’ 등의 제목으로 발표돼 온 글들로 정치의 본질과 구조, 인물의 이면을 통찰력 있게 조망한다. 정치의 중심부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써 내려간 현장 기록이자, 깊이



있는 시대 평론인 셈이다.

작품은 동학농민운동, 북한의 베트남 파병과 같은 역사적 주제부터 최근의 12.3 비상계엄 사태, 제21대 대통령선거

까지 아우르며,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사의 주요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특히 호남 정치를 향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취재력, 문제의식 등이 담겨 ‘광주·전남 정치사의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간을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들의 추천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야 할 중차대한 시기, 이 칼럼집이 호남의 빛나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지혜를 얻을 훌륭한 밑알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격동의 현대 정치를 민주와 호남의 관점에서 밀도 있게 짚어낸다”고 호평했다. **박찬 기자**

극단 도깨비, ‘경찰은 시민을~’ 21~22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의 이야기가 연극으로 되살아난다.

극단 도깨비는 연극 ‘경찰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를 21일 오후 7시, 22일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안병하 치안감의 이야기를 다룬다. 광주문화재단의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작품으로 1980년 5월, 광주·전남의 치안을 책임졌던 안 치안감이 시민

과 경찰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일상을 살아가던 한 기자가 안 치안감을 취재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따라가며, 그의 용기와 선택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은 이재의 작가가 집필한 평전 ‘안병하’를 원작으로 한다. 극작과 연출은 최용규 연출가가 맡았으며 출연진으로는 안병하 역에 김예성, 전인순 역에 김수옥, 최 기자 역에 송민종 등 총 12명의 배우가 출연해 무대를 채운다.

최용규 연출가는 “많은 관람객이 공연을 보고 5·18 당시 시민을 지킨 안병하 치안감의 위민(爲民) 정신과, 역사 속 숨은 영웅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